（韓国・朝鮮語）

妊娠中の方へ

임산 중인 분들에게

대피소에서는 물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때문에 음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해 가려울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임신 중에는 질분비물의 양이 증가합니다.

가능하면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팬티라이너를 이용하는 등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 주십시오. 만약 그것이 어려울 때는 화장실 사용 후 깨끗한 물에 적신 휴지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면 좋습니다.

혹시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백색의 요구르트와 같은 불투명한 질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칸디다증일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씻는 것만으로는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.

음부에 대한 고민은 타인에게 말하기 어렵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가까운 의료진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